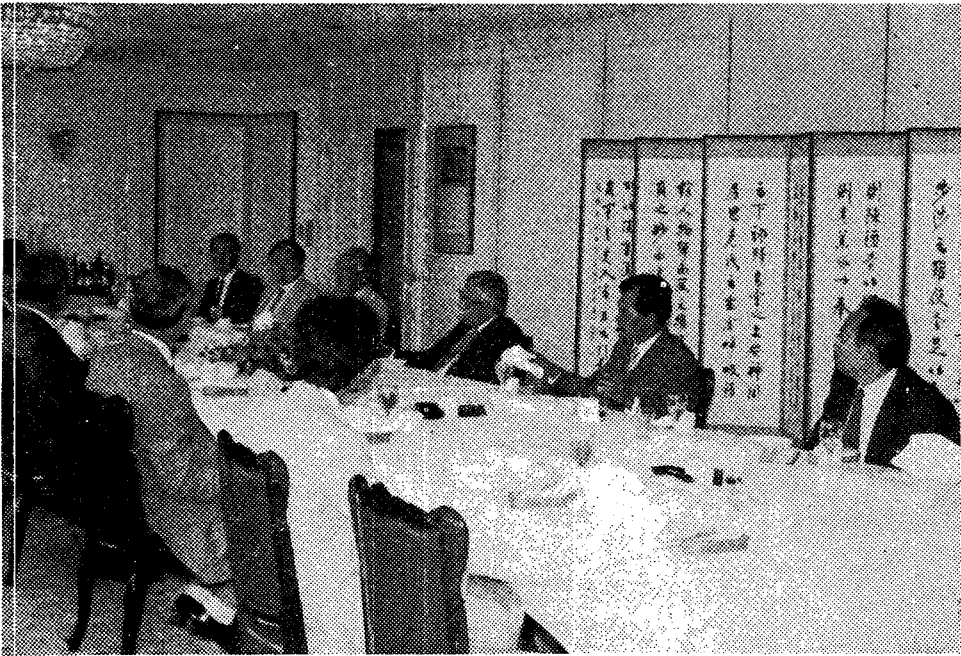


환경뉴스

K·E·P·A소식

UNEP 톨바事務總長 본협회 예방 本協會 임원들과 상호관심사 나뉘



〈 UNEP 톨바사무총장이 본協會를 예방하고 상호 관심사를 교환했다. 톨바총장은 「태평양과학대회」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다. 〉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 Environment Program: UNEP) 사무총장 「톨바」 (Dr. Tolba) 박사가 본協會를 방문했다.

8월 26일 본協會 정수창會長과 노재식 副會長을 비롯 권

숙표 (연세대 교수) · 홍순우 (서울대 교수) · 차철환 (고려대 교수) · 이승무 (연세대 교수) · 채우식 (동양환경개발 (주)대표이사) 이사등과 오찬을 함께 하며 상호 관심사를 교환했다.

이자리에는 환경청 이두호次

長과 본協會 최홍식事務總長등이 배석했다.

톨바박사의 우리나라 방문은 지난 8월 20일에 개최된 「제 16차 태평양 과학대회」 참석차 방한했으며 본協會의 경제기획원과 보사부, 환경청도 예방했었다.

「제 16 차 태평양과학대회」 성대히 개막

환경보호 및 생태학에 관한 문제등 국제심포지움 열려

한편 「학술올림픽」이라 불리는 「제 16 차 태평양과학대회」가 태평양과학협회 주최, 대한민국학술원주관으로 8월 20일 롯데호텔에서 개막됐다.

개막식에는 徐明源문교부장관과 朴肯植과기처장관등 국내 1천 2백여명의 관계자와 70여개국 2천 5백여명의 자연과학 및 인문 사회과학분야의 권위자들이 참석했다. 8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태평양지역의 과학, 인력 및 자원에 관한 새로운 차원의 모색」을 주제로 하고 있다.

UNEP 톨바박사, '58년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CN양教授(美 뉴욕 주립大), '76년도 노벨의학상 수상자 가주세크教授(美 뉴욕工大학장)등

과 泰國公主人 출납호른 마히 톨바박사가 참석하여 과학의 새地平을 연다. 톨바박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경제에 한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 또한 막중하다」면서 세계경제의 환경적

넓이보다 더큰 땅들이 사막화되고 자연환경이 점진적으로 파괴되어가는 상태이며 자동차, 공장, 기타 발전소에서 나오는 가스등으로 지구 표면의 온도가 섭씨 4·5도까지 높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토대를 이루는 산림·녹지·바다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등이 급속히 오염, 침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밝히고 「南·北美대륙을 합한

이번 대회는 일반심포지움과 국제심포지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별표참조> 이 밖에도 ▲加平等 서울근교 지질등 45개 코스에 대한 학술여행 ▲과학기술자재 및 도서전시회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톨바事務總長프로필



1922년 이집트에서 태어났다. 이집트대학교를 나와 런던대학교 임페리얼칼리지에서 식물생리학(Plant Physiology)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후 이집트대 미생물학과 교수, 이집트문교부 차관, 청년부장관, 대통령 정부수석보좌관등을 역임했다.

'73년부터 UNEP 사무차장, '76년 사무총장에 재임된 후 지금까지 재직중이다. 톨바사무총장은 지난 '78년에는 모스크바대학에서 명예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1950~1973년에 걸쳐 세계유명과학잡지에 95편의 논문발표등 식물 및 미생물 분야등에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

서울 태평양과학대회 일정

★일반심포지움 및 分科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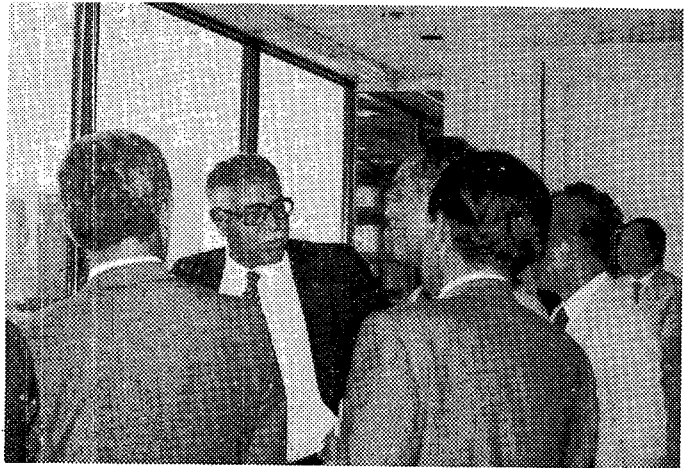
분과명	일시	장소
태평양지역 국가의 과학기술개발	21, 22, 25	롯데호텔
태평양지역의 인구와 식량	21, 22	"
태평양지역의 주요자원의 전망	24, 25	"

생태학의 환경보호	20,21,24 25,27	"
지질과학	20~22 24~26	"
지리학	21,22 24~27	"
박물관과 유이기관	29	"
해양과학	25~29	"
인문사회 과학	21,22,24 27~29	"
경제학	26,29	"
산호초	25~27	"

식물학	21,22,24 25	"
임학	20,21,24 25,27	"
육수학	21,27,28	임업시험장
곤충학	20~22 24,25	"
공중보건및 의학	27~29	"
영양학	24~26	"
과학정보와 교육	26~28	"

★국제심포지엄

환경보존을 위한지역간 상호협력	25~26	한 양 대
동아시아 선주라기의 지구역사	24,25	서 울 대
서태평양지 역의제 3기	24,25	"
태평양 연 변에서의분 류학적표본 수집현황	26	롯데호텔



〈틀바總長은 「태평양과학대회」의 기초연설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사진은 本協會 이사들과 함께 -〉

사회주의제 국내의 경 제체제와개 혁	9.1~3	호텔신라
B형 간염	24~26	조선호텔
신증후 출 혈열및 일 본뇌염	24~26	"
태평양지역 에서의 생 물계통분류 연구및 그 공헌	21	롯데호텔
지역해양과 학 교육과 정을위한배 경자료를평 가개발하기 위한 자문 회의	24,26	조선호텔
산림행정과 정부의 연 구축진	26	임 업 시 험 장

▲본대회·분과회의 초청연사

이름	국적	주요경력 및 현직책
CN양	미 국	1958년 노벨물리학상수상
GA 카스텔로	필리핀	前국제강자 연구소 소장
J 조셉	미 국	前미국 열대어류 위원회 연구실장
MK 톨바	이집트	UNEP 사무총장
핀러둥 보아	미 국	하와이대 식물학교수
DC 가이드젝	"	1976년 노벨의학상수상
G 블리아렐로	이태리	뉴욕工大학장
게일존슨	미 국	시카고대 국동문예연구센터
출남호르다히틀	태 국	태국공주
V 라비노비치	미 국	학술원 국제문제 분과위원장
MN 샤라프	인 도	인도 ESCAP 기구대표
崔 亨 燮	한 국	학술원 회원
김 정 흡	"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
崔 永 煥	"	과학기술처 기술정책실장
장폴카레	프랑스	KAIKO 연구소 상임연구 위원
이차카와	일 본	지질학회장
P 스 콧	캐나다	세계지리학회장
H J 워커	미 국	루이지애나주립대 지리인 류학과
B안드레아	이태리	이태리 독일고교학 연구소장
TR 파슨스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대 해 양학과
야마자토	일 본	일본분류류대생물학과 교수
G Y 리	미 국	코넬대 식물학과 교수
CC블래	"	식물 병리학 교수
한 다	일 본	교토대 산림경영학과교수
沈 龍 燾	한 국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
F 머 겐	미 국	세계 산림개발위원회 위원장
M소르차니	인 도 네시아	인도네시아대 환경인간자 원 연구센터

CB허페이커	미 국	캘리포니아대 곤충학교수	시노하라	일 본	아시아 경제연구소소장
WR게디스	호 주	호주시드니대 인류학과 명예교수	나카지마	"	WHO서태평양지역기구총재
셀로스마르잔	인 도	인도네시아대 사회과학 명예교수	CD버대외어	미 국	조지아대 식품영양학과
네시아	인 도	인도네시아대 사회과학 명예교수	다 나 카	일 본	오사카대 의과대학장
金元龍	한 국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	E에이저	미 국	아이오와대 과학교육센터
			NJ로젠버그	"	네브래스카대 농업기상학과 교수

本協會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해설세미나 서울·경기·인천등 지부별로 개최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시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설명회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

本協會는 8월 26일 서울대 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환경보전법」해설세미나를 개최했다.

환경보전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진행된 세미나에는 환경청 정혁진 법무담당관이 강사로 나섰다. 약 2백 5십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는 질의·응답을 끝으로 모두 마쳤다.

이에 앞서 8월 19일 本協會 경기지부 <지부장 조중태>도 관내 회원사 및 비회원사 3백 50여명을 대상으로 水原商議에서 해설세미나를 가졌으며 부산지부 <지부장 안석순>도 부산상의에서 8월 21일에 부산지청 박대문 계획과장과 이수원 지도계장을 초청, 2백여명의 회원사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해설세미나를 진행했다.

전북지부 <지부장 안성호>는 지난 14일 全州商議 회의실에서 환경보전법 해설세미나를 개최했다.

관내 기업체 환경관리기사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병철 광주환경지청



<서울본회의 환경보전법해설세미나-대한상의 회의실>

지도과장과 이인영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부 기술과장이 강사로 나서 ▲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해양오염 방지법

등 관계법규 해설과 산업폐기물의 에너지자원, 지원제도 및 이용기술에 관해 각각 설명했다.

이밖에도 인천지부 <지부장 노창현>가 9월 28일 정혁진 법무담당관을 초청 해설세미나를 갖는다.

한편 경북·대구지부 <지부장 신해철>는 8월 27일~ 28일 양일간 대구상의 회의실에서 대구환경지청 장성기 지도과장을

강사로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해설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同지부의 환경보전법 세미나는 오는 10월중에 열린다.

本協會 노용희理事 (서울대 교수)

9월 18일 華甲기념 논문집 헌정식

本協會 노용희理事 (서울대 환경대학원 教授)의 華甲기념 논문집 헌정식이 9월 18일에 열린다.

오후 6시 서울엠버서더호텔

에서 있을 헌정식은 同편찬위원회가 제작한「國家發展과 公共行政」이라는 論文集이다. 자세한 문의는 同준비위원회 567-3372 (서울) .

환경보전 공익광고 방영·방송

本協會 제작 「산쓰레기」에 관한 내용

本協會가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키 위해 기획·제작한 환경보전 공익광고가 TV·라디오 등에 방영·방송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공익광고의 내용은 「산쓰레기」에 관한 내용으로 30 초짜리다. 지난 7

월부터 MBC, KBS TV와 라디오 매체를 통해 방영·방송된 공익광고는 「공익광고협의회」명의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극장 영화상영 막간에도 방영될 예정이다.

環境廳소식

우리나라 쓰레기 재활용율은 1.8%에 불과 매립지부족, 분리수거 정착화 요청 돼

우리나라 쓰레기는 92.5%가 매립 처리되며 3.8%가 소각되고 재활용되는 양은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1일 배출되는 쓰레기는 6만 1천 t. 이중 약 10% 정도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리수거를 통해 공병, 깡통, 휴지, 고철 등 자원의 회수효과를 높이고 매립지부족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전국적인 분리수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청은 최근 분리수거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건설부의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관한부칙」에 분리수거에 적합한 더스트 슈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도록 요청했으며 쓰레기통 맨 아랫부분에 끌어내기 쉬운 용기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청소원이 일일이 끌어내어 수거해야 하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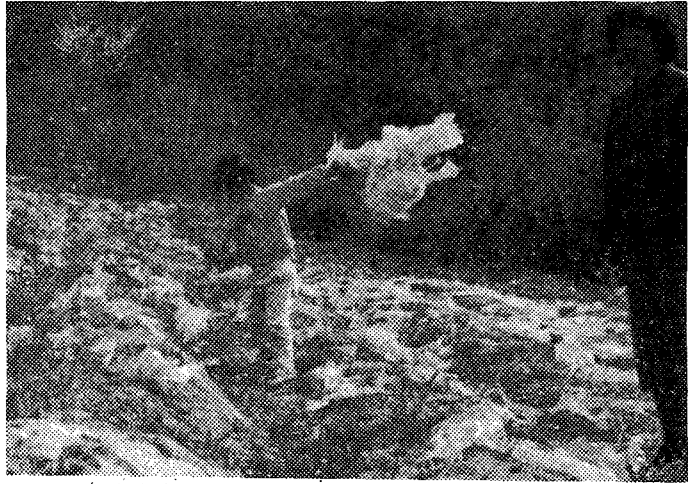
〈우리나라 쓰레기는 92%가 매립처리된다〉

자원재생공사 폐비닐 재생공장 가동 폐비닐이용 화분, 정화조등 생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7월 21일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62번지 일대에 대지 2,540평, 건평 680평 규모의 폐비닐 재생공장을 구입했다. 일상생활속에서 비닐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자는 최근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이곳에서 kg당 20원에서 70원씩 폐비닐을 사들이고, 이를 활용하여 각종 화분, 공원용 벤취, 깔판, 정화조, 합지박, 맨홀뚜껑 등을 생산하게 된다.

이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지금까지 폐비닐 1톤당 75,000

원을 들여서 소각을 하던 비용을 대폭 절감하여 하이덴 4,000



<자원재생공사는 폐비닐을 사들여 재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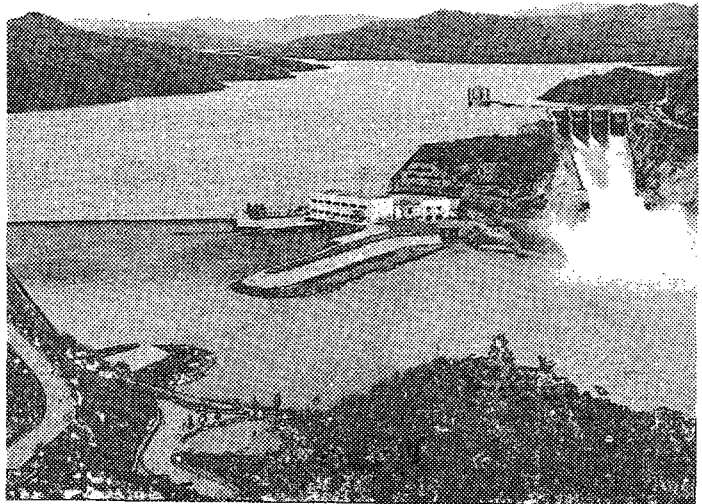
톤을 재생처리할 때 3억원가량의 소각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재생산된 2,000톤을 매각할 때 6억원의 자금을 얻게 되어 연간 약 9억원의 자원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정책기본법마련 오염자 책임제 신설

7월 12일 환경청은 환경정책기본법안을 마련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해 오염자의 비용부담책임제를 신설, 오염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기로 했다. 또한 환경청장은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

할 시, 도지사가 해당지역안의 환경보전 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했다.



쓰레기소각로 설치계획 마련 '91년까지 하루 1천 7백톤 처리돼

8월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쓰레기 에너지자원화를 위한 소각로는 서울목동에 1백 50 t, 의정부에 50 t 규모로 각각 설치돼 있고 난지도에 1천 5백톤 처리규모의 RDF(고형 폐기물연료) 제조공장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1단계로 91년까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성남등에 하루 4천 3백톤처리규모의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하고 '91년부터는 서울·대전·수원·안양·부천·청주·전주·마산·울산등에 소각로를 설치, 하루 1천 7백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거·운반·매립등

의 쓰레기 처리비절감과 대기 및 토양등의 오염을 줄일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쓰레기의 에너지 자원화 방법은 쓰레기 소각로와 RDF제조방법이 있다.

안성천유역 가축폐기물 문제 심각

90%가 사용자 임의로 처분돼

경기도 안성천 유역의 가축 폐기물의 90%가 사용자 임의로 처분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안성천 유역의 가축폐기물은 총발생량이 3,295 ton/day로 이중 386 ton/day만이 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해 정상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89%인

2,909 ton/day가 안성천에 마구 배출되고 있다.

이 결과는 국립환경연구원이 지난 '85년 1월에서 '86년 11월까지 연구한「가축폐기물의 현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밝혀졌다.

부산지청 배출업소검체 분석 소요일수지침

부산환경지청은 배출업소 검체분석 소요일수지침을 제정·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제정된 검체분석의 최대소요일수는 BOD포함 시료 8일, 아연, 구리, 카드뮴, 납 6가크롬, 망간, 철, 니켈, 총크롬, 수은 등이 4일이며, 분진류, 가스상물질 3일, 중금속·무연휘발유중 납이 5일이다 이처럼 검체분석 소요일수를 제정한 목적은 배출업소 부과

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체 분석 소요일수의 상이에 따라 야기될 민원해소 및 배출부과 금액 산정기관의 일관성 유지를 도모하는데 있다.

대구지청 연안오염방지 추진실적 평가회의

대구환경지청은 7월 29일 同廳회의실에서「연안오염방지 추진실적 중간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연안해수 수질악화방지 및 어자원보호를 목적으로 열린 금번회의는 경북도내 환경관리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연안 문제점, 연안오염방지 추진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토의했다.

서울지청 방류수질유입 하천오염도 측정

서울 환경지청은 지난 6월 29일~7월 14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공장폐수 방류 수질의 유입 하천오염도를 측정했다.

구로공단, 인천공단, 반월공단내 하천에서 실시된 측정은 지점당 연속 4일간 매일 4시간 간격으로 24회를 측정했는데 BOD의 13항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會 告 :

연재중이던 「기술광장」(하천등의 수역에 있어서...)은 지면관계상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 편집자注 -